

구역예배 순서지

2023.06.14.(수)

-일 시 : 정해진 날 -장 소 : 정해진 장소 -인 도 : 구역장 또는 강사

● 목상기도/각 자 ● 기 원/인도자 ● 신앙고백/사도신경

● 경배찬송/새440장(통497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 기 도/가족 중에서

● 주일말씀과 삶의 나눔/주일예배 말씀의 은혜와 삶을 서로 나눕니다.

● 성경봉독/누가복음(눅)9:18-27(p.107) /구역원 중에서

● 말 씀/“예수님을 따르려면”

사람들이 무어라고 하든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나는 예수님을 따를 제자로 준비되어 있는가?

1.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었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물었으며,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18-19절)

예수님은 벳새다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후에 따로 떨어져서(가이사랴 빌립보 부근, 마16:13,막8:27 참조)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상황이었다(18절상).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물었다(18절하).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대답하였다(19절). 이러한 제자들의 대답은 분봉왕 헤롯이 들었던 소문들과 같다(7-8절 참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다.

2.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이에 대답한 제자는 누구이고, 대답한 내용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명령하신 내용과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20-22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물었고, 이 질문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고 하였다(20절). 그러자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다(21절).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삼일 째 되는 날에 부활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22절).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라는 뜻이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보다, 엘리아보다,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 보다는 위대하고 그들이 이때까지 고대하며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은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다 알지는 못했다. 오

히려 베드로의 고백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로마의 속국민으로 살아온 관계로 해방을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단순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만 이해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아무게도 하지 못하도록 엄히 경고하며 명령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자신의 메시아로서 가야하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이다.

3.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며, 그 내용과 의미는 무엇입니까?(23-26절)

예수님께서 무리 즉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했다(23절). 자기부인은 자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자기가 아닌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짊은 부귀와 명예가 아닌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은 들쭉날쭉 하지 않고 변함없이 날마다 지고 가야하는 일인데 이를 성화(聖化)라고 한다. 그러므로 제자의 이 길은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 놓음으로 구원을 얻는 영생의 복을 얻게 되는 길’인데(24절) 이는 ‘온 천하를 잃는 것보다 귀한 것’이라고 했다(25절).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도 내어 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전10:31). 또한 이 제자의 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랑하는 길’인데 그때 예수님도 심판주로 오실 때(행10:42) 그 제자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게 된다고 했다(26절). 그러므로 제자들과 무리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천국복음의 전파)를 볼 사람들도 있다’고 했다(27절). 예수와 복음은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존귀의 대상이다(요5:24).

● 나눔과 기도/다같이

1.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메시아로 믿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매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목숨도 내어놓고 자랑할 수 있게 하소서.

2.전반기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젊은 세대들과 함께 하소서.

3.믿음과 은혜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가로 영광 돌리게 하소서.

4.코로나로 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영육간 삶이 회복되어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5.연약하고 병약한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도와주소서.

6.송림1,2동지역 재개발사업이 속히 잘 진행되고, 교회부지 위치도 잘 되게 하소서.

7.우리 교회가 동구와 인천과 온 세계를 향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8.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끝나고, 남북도 평화통일이 속히 오게 하소서.

● 마무리 기도/말은 자 중에서

● 파송찬양/새449장(통377장) “예수 따라가며 ” ● 주기도문/다같이